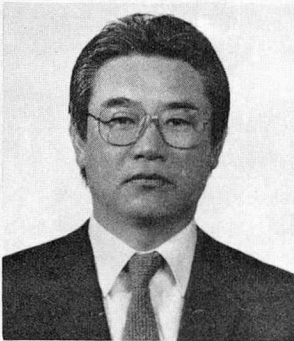


보상·금융기능 외에 사고예방에도 일익



이 재 희
(동방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I.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보험의 실체에 있어서는 그 분야가 넓은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독립분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보험의 종류와 그 경제적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세상에는 개인, 기업,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가득차 있으며 그 재산의 증식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행복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생존과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은 화재, 홍수, 도난...등 여러가지 재해나 사고에 의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손해의 발생은 재산가치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상실된 재산을 보상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제도중의 하나가 바로 보험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가옥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을 복구하는 방법은 저축이 있는 경우 저축금으로, 저축이 없는 사람은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으로,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 보상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두가지는 손실액 전부를 자기부담으로 보전하는 것이지만 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 없이 보험회사가 그 전부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가령 5억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화재를 당하여 3억원의 손해를 입었을 때 3억원이란 저축이 있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타인으로 부터 차입하거란 용이한 일도 아닐 뿐더러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막대한 이자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으며, 비록 그러한 방법이 마련 되었을지라도 피해액이 회복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에는 명실공히 재산의 손실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고 유익한 경제제도이며 특히 자력회복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필요 불가결한 제도라고 하겠다. 다만 보험이란 것은 항상 “사고 또는 재난” 이란 불길징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수없다”라는 혐기사상(嫌忌思想)에 물들어 있는 동양인에게는 호의적인 상품이 아닌 점에 문제가 있지만 보험제도의 유용성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재음미할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II. 보험의 여러가지 종류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재산의 형태가 단순하였지만 산업과 과학이 발전되고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갖가지 위험의 질과 양도 커졌고, 보험도 이에 맞추어 발달되어 왔다. 개인소유의 가옥으로부터 해상을 누비는 선박과 그 적재화물, 지상의 온갖 건물과 공장, 하늘을 날르는 항공기에 대한 보험은 물론, 인공위성의 발사에서부터 케드비행중의 온갖 위험을 담보하는 우주보험까지 판매되고 있다.

① 가계중심의 보험

가정은 사회조직중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작은 생활단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주거가 있어야 하고 가계도구와 가족이란 생명체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완성의 정신적인 길과 생계비 조성과 재산축적이란 과정을 지속적으로 밟아야 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생활도구는 편리해지고 생활양식과 방법은 다양화 되고 가속화된다. 반면 문명의 이기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고 생활양식의 변화는 위험의 내용을 복잡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생활도구의 진열화는 화재위험을, 다수인과의 빈번한 접촉은 예기치 않는 질병을, 빈부의 격차는 도난위험을, 교통수단의 발달은 상해위험을 증가시키고 그 빈도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도난보험 등 불의의 재난에 대한 자기책임하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생활단위도 대가족제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또한 사회의 의식구조도 상호부조적인 경향에서 개인독립책임경향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보험제도를 이용한 재산보호만이 유일 무이한 길이라고 하겠다.

② 기업보험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기업은 개인의 생존이나 국가준립의 주축적인 조직체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업활동은 개인에게 소득을 얻게 해주고 국가에 대하여는 재정의 근원을 마련해줌으로써 일국 경제의 중심적 집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의 중대요소는 자금, 노동 및 기업가정신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의 기업의 존립여건 일뿐이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재기불능 상태에 이른 때에는 기업은 종말을 보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에 기업활동을 보장해주는 경제제도가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산기업인 경우 공장 건물 및 기계의 도입, 설치에서부터 가동중의 위험, 제품이 완성되어 국내외의 소비자에 배분 될때까지의 보관, 운송중의 위험등... 이러한 모든 위험을 생산자가 단독으로 책임진다고 할때 기업가는 불안 때문에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될 것이다.

또 하나 선박회사의 예를 들면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한 세계 각국간의 교역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해상운송에는 선박의 화재, 좌초, 충돌, 기관고장, 악천후... 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보험제도가 없다면 단 한번의 선박의 침몰로 선박회사는 도산하고 말 것이다.

흔히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보험료는 버리는 것이고 기업은 그것 만큼 손실 내지 이익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경영에 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 만큼의 손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존속되지만 보험없이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이익의 감소 또는 약간의 손실 감수나 생존의 포기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 기업경영에서 보험료는 가장 중요한 생산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③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그들의 활동에는 언제나 제 3자가 개재하고 있다. 옛부터 한국사람은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소위 동양적인 논리, 즉 속명론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용서와 인내로써 해결하였으나 개인주의 사상과 인간의 존엄성을 생활규범 속에 도입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자가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이 점진적으로 고액화 되어가고 있는 경우 불행하게도 사고를 일으킨다면 가해자가 자력으로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한편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즈음 시중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무보험차량에는 당하지 말라는 농담조의 말들이 있지만 이것은 무보험차량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파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3 자에 대한 손해는 자동차에 관한 것만은 아니며, 호텔, 극장, 음식점, 병원등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나

각종의 생산물을 제조하는 생산업자등 거의 모든 기업이안고 있는 위험이며 앞으로는 잃든 좋든 구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임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④ 기타의 보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재산이 있고 활동이 있는 한 위험은 따르게 마련이고 위험이 있으면 보험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보험수요자 개개인이 독자적인 능력만 으로서는 그 위험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생활의 기본요건으로서 보험제도의 이용은 필수화된 것이라고 하겠다.

현대를 신용사회의 시대라고 한다.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상품의 구매도 외상이나 할부가 통용된다. 그러나 그 신용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은 보증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보험은 재물자체의 손해만을 보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재물 자체 외에 일정한 이익까지도 담보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이와같이 수요가 있으면 보험상품은 무한히 공급될 수 있으며 보험이 있는한 인간과 기업은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Ⅲ. 보험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보험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보험의 경제적 기능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보험기업은 영리기업인 동시에 공익기업이라고 한다. 영리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업으로서 이윤추구를 도외시할 수 없는데서 나온 것이며 공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는 일인 이지만 보험가입자는 수십만, 수백만이기 때문에 보험자 일인의 파산은 너무 많은 사람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① 손해보상기능과 사고 수습책임의 분담

가계보험이든 기업보험이든 보험의 1차적 기능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있다. 즉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전의 상태로 재산손해를 회복시켜 주는 경제적 손실 복원이 주목적이지만 사실상은 단순한 재화가치의 회복보다는 또 다른 효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3요소중 인력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가계상의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은 경우 그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에 어떤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한층 더 심한양상을 띠게 된다.

보험에 의한 아무런 보호없이 기업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업자체에서 사고의 수습, 손실보전, 자금조달 등 정상업무외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간적 특성이 따라야 하는 것이나 보험이 있을 때에는 보상에 따른 모든 문제는 보험자측에서 전담처리해 줌으로써 사고수습의 책임을 분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② 보험의 금융적 기능

보험이 손해보상의 기능외에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험은 많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영수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의 대부분을 적립하게 된다. 적립의 형태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등 투자의 3대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일부는 대부를 통한 직접금융을,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기구를 통하여 정기예금, 유가증권투자를 함으로써 간접적 금융공급 기능을 담당하며 자본시장에서 자본형성 및 공급의 일익을 수행하고 있다.

③ 사고예방 및 손해경감 기능

전통적 견지에서 보면 보험의 기능은 상술한 보상기능과 금융기능만이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에 못지 않게 사고예방적인 보험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 하겠다.

사고의 위험성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보험기술상 바로 보험요율에 반영되고 보다 낮은 보험요율로 보험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은 예방조치의 강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가져오며 보험가입자로서는 위험의 측정과 그 감소를 보험사-비스의 일환으로 당연시하게 된 것은 보험수급자의 균형적인 관계유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고예방과 손해경감 분야에의 보험기능 강화는 보상과 금융기능만을 중시해 온 전통적 보험관을 수정하는 결과라고 하겠으며 앞으로 보다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강조될 것으로 믿어진다. ❖